짝 맞춰 기쁘게 가게 하라

(행8:26~40)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 (없음)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짝 맞춰 기쁘게 가게 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짝 맞춰 기쁘게 가게 하라'

요즘 많이 보이는 광경이 있습니다.
멋진 차 한 대를 완전히 꽃과 장식으로 꾸며서 그 차가 달려가고, 그 뒤로 비상등을 깜빡깜빡 켠 차들이 아주 길게, 많게는 열 대가 넘게 그 차를 따라다니다가, 어디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차들이 다 멈춰 서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광경들을 보게 되요.
궁금해서 차를 같이 세워놓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결혼식이 끝난 뒤의 모습들이에요.
신랑신부가 맨 앞 예쁘게 꾸민 차에 타고 가다가, 세워서 사진도 찍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인데도 친구들이 서로 입도 맞춰보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가 강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광경을 자주 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런 장면 속에서 단 한번도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연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무도 거기에 끼어있지 않지요.
그게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떠나보내는 겁니다.
짝 맞춰서 기뻐합니다, 배필을 찾은 거니까 아들을 보내든 딸을 보내든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짝을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결혼식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결혼을 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요즘의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이집트 아래에 에티오피아가 있고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점령한 때도 있었습니다.
문명이 아주 발달했을 때였고 모계로 왕위가 계승되는 나라로서, 이집트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왕을 고유명사가 아닌 '간다게'로 호칭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소위 말해서 재정부장관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번역이 좀 잘못 됐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떠났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을 못 본 게 아니라,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를 다시는 못 보게 되었다, 그러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결혼식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면서 가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현장에 오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 집사가 가마에 올라타서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걸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순식간에 빌립을 그 현장에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여기서 데려가신다는 헬라어의 뜻은 잡아채신다는 얘기에요.
즉, 세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에티오피아 내시 눈앞에서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39절에 그렇게 빌립이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는데도 이 에티오피아 내무장관이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궁금해 하거나 찾았다든지, 빌립이 없어져서 아쉬워했다든지 하는 설명이 전혀 없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그냥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해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뭔가 좀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을 사람, 가마를 타고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인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빌립 집사님은 사라져버렸고 이 사람은 기쁘게 가는 겁니다.
자식들 기껏 이삼십 년 동안 뼈 빠지게 길러서 짝 맞춰주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부모님 생각하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인사로 전화해서 잘 도착했다고 하고 마는 거죠.
그런 거가 돼버린 거예요.
또 빌립이 이렇게 부모님의 입장이나 아니면 중매쟁이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짝 맞춰서 짝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떠나보내면 끝나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목회에요, 이게 바로 전도이고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짝 맞춰서 기쁘게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직도 이 땅 위에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짝 맞춰 기쁘게 떠나보내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시는 거라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인 내시가 기뻐하게 된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기쁠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어찌어찌 하여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의 여호와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 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먼 길을 와야 예루살렘에 도착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여호와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시인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낭, 고환이지요, 고환에 문제가 있거나 베인바 된 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하나님께로 자꾸 끌려가는데, 아무리 먼 길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와봐야 성전 안 깊숙이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여호와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성소 앞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의 뜰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먼 길을 왔고, 내시이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여기에 와가지고는 정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수난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다가 빌립에게 그 지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동안 내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여호와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를 지나서 시나이반도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남쪽으로부터 접근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어려운 여정을 지나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내시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도 간절히 원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도 접근이 불가능했던 여호와하나님에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속에서 나타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보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을 이 사람이 찾고 얼마나 기뻐했겠는가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큰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여호와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시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막혀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깁니다.
이 기쁨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성령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잡아채 가십니다.
이것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한 전도를 하게끔 하려고 끌고 가신 것이지마는,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그 예수님과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사이에 더 이상 빌립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빌립을 제거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점이 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쁘게 가니라' 기쁘게 가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한 뒤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교인 한 사람이 짝을 맞춰서 결혼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기쁘게 가게 하고, 나는 그렇게 짝 맞춰진 교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제거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매주 오지만, 그 매주 오는 교인에게 내가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천 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사건을 그 교인 앞에서 재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것처럼.
재현해줌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교인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어떤 일보다 먼저 보게 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서 예수님과 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짝이 되게 한 뒤에 승천하시면서 열어놓은 그 길을 보게 하고, 그 길 끝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아버지를 찾게 한 다음에 기쁘게 된 상태에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돼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의 입에서는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못해!' '우리 목사님 ㅇㅇ이 부족해'
계속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목사님이 끼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서 제거되어야 돼요.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라는 조직에 교인들의 마음이 묶여있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끼어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짝 맞춰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기쁘게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목사님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찾았으면, 몸이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르는 게 가장 좋은데, 살려두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직장에서 사장님과의 관계는 내가 사장님께 잘 보여서 칭찬 듣고 하루 빨리 승진해서 연봉이 자꾸 늘어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장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장님을 짝을 맞춰드리고 기쁘게 사장님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것, 이런 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과 짝을 맞춰드린 뒤에 떠나버리는, 그 사장이 나를 잘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내가 그 사장님을 완전히 예수님과 짝 맞추는 일을 도와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열린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로 인해 기뻐하는 사장님이 자기 길을 갈 때에, 사장님의 짝이 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대하라는 마음을 사장님에게 주시면 하실 것이지, 내가 사장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어떻게 하면 사장님과 예수님이 짝이 되게 할까?
그래서 사장님과 예수님이 짝이 되어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 할까?
그렇게 가는 사장님의 길 속에 내가 안중에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교인들이 예수님과 짝이 되게끔 한 다음에,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나간 교인이 예수님과 짝이 돼서 잘 살면서 사업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그 교인의 짝이 된 예수님과 교인과의 일이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명절이라고 사과 한 상자라도 들고 오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 슬퍼할 일이 아니라, 짝이 된 예수님께서 교인에게 지시하신 대로 교인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둘 일이 아니에요.
'아, 교인이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 맞춰서 기쁘게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들어온 돈, 그러면 그 돈도 짝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의 쓰임새가 예수님에 의해 쓰여 지면서 올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물건도 다 예수님과 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물건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든 어떤 물건을 대할 때든, 제일 먼저 그것들보다 그 사람 그 상황 그 물건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 스스로가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먼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죽을 때, 내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과 사람과 모든 물건들은 예수님과 짝이 되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물건도 떠나보내고 상황도 떠나보내고 사람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낼 때 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고, 없으면 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 상황과 모든 물건에 짝을 맞춰 기쁘게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하느냐,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느냐,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느냐, 이것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물건이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 좋고, 상황 좋고, 사람 좋고, 물건 좋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예수님과 짝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여 나를

떠나게끔 하는 일만 평생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